정 | 책 | 메 | 모 |

2012. 11. 6 | 제 202 호 |

가을여행, 영월 박물관고을로

• 이영주(연구위원)

강원발전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정책메모 2012-89호

2012. 11. 6 | 제 202 호 |

가을여행, 영월 박물관고을로

• 이영주(연구위원)

박물관의 종류는 다양하다. 고고학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역사박물관, 전쟁박물관, 자연사박물관, 해양박물관, 야외박물관에 더하여 가상현실박물관, 라면박물관이나 자동차박물관과 같은 특화된 박물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박물관이 있다. 1974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채택된 국제박물관회의 헌장은 박물관을 인류와 그 환경에 관한 물적 증거를 학습 · 교육 및 오락을 목적으로 수집 · 보존 · 연구 · 의사전달 · 전시하여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학구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은 르네상스시대인 1471년 교황 식스투스 4세가 로마에 세운 캐피톨린박물관이라고 한다.

그간 박물관은 중요 유물을 수장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딱딱하고 재미없는 공간으로 여겨졌으나 콘텐츠 보물창고의 기능이 부각되고 다양한 전시기법이 개발되면서 후기산업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급문화 소비의 현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루는 테마가 다양해지고 체험적 오락성이 가미되어 밖으로 나가던 여가, 관광 수요를 안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박물관이 시간, 거리, 비용에서 교외 테마파크보다 매력적이고 비교우위를 지니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강우나 추위와 같은 계절의 흐름을 타지 않으며, 도심 공동화를 막는 부가적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영월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박물관고을 중 하나이다. 2005년부터 크고 작은 다양한 콘텐츠의 박물관들이 20여 곳 모여서 강원도 내륙에 독특한 문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대도시가 아닌 산촌지역에 박물관들이 가로를 따라 늘어선 풍경은 장관이며, 문화시설정책의 독특한 성공사례의 하나로 손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제는 전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곳을 즐겨 찾도록 하고, 그 동안 박물관고을 만들기에 들어간 노력과 정성이 제대로 평가 받도록 하는 일이다. 대도시의 박물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제대로 된 문화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영월군의 박물관들이 길게는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박물관고을을 22세기를 지향하는 강원도의 문화관광자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4계절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도 8월 바캉스 여행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를 범하기보다는 국내 문화관광객들의 대이동이 벌어지는 가을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박물관들을 네트워크화해서 가을의 킬러 콘텐츠로 무장시켜 영월이 '가을박물관고을'로 변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기획 및 운영 그리고 여행사가 앞장서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홍보가 강화되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인다. 영월 박물관고을이 강원도 가을 방문지의 내륙 앵커로 자리매김하면 영월은 물론 강원도 관광의 종심은 깊어지고 활성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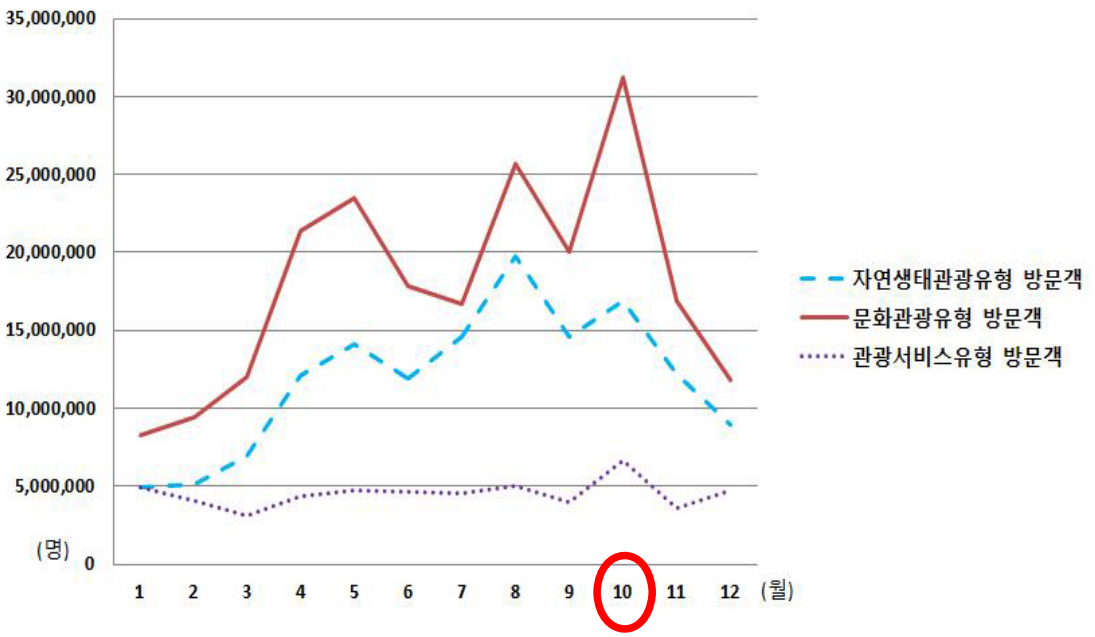
연락처 | 이 영 주 연구위원
T. 033. 250. 1365 (juri@rig.re.kr)

RIG 강원발전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Ⅰ. 가을은 문화관광의 계절

○ 전국적으로 가을(10월)은 문화관광의 최고 성수기

-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관광지는 자연생태관광, 문화관광, 관광장소·시설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 주요 유형별 관광의 방문객 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
  - 자연생태관광 유형 방문객 수 : 그대로 사용
  - 문화관광 유형 방문객 수 : 원래의 유형구분상 방문객 수와 관광장소·시설의 전시·관람시설 방문객 수를 합계
  - 관광서비스 유형 방문객 : 관광장소·시설의 숙박·식음시설과 쇼핑시설 방문객 수만 집계
- 자연생태관광 유형의 방문객이 여름(8월)에 가장 많은 것과 달리 문화관광 유형의 방문객은 가을(10월)에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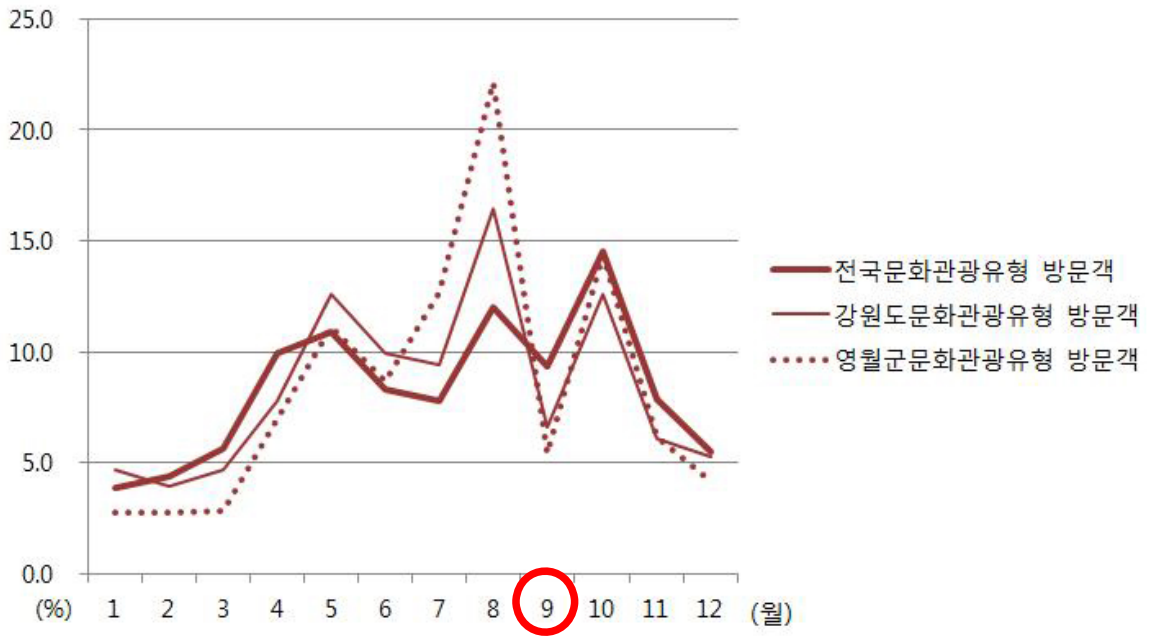


〈전국 유형별 관광의 방문객 분포(2011년)〉

※ 자연생태관광 유형 : 동·식물, 보호구역, 산악·평지, 수변·해양(해수욕장 제외), 경승지
※ 문화관광 유형 : 문화관광자원(인물, 축제, 민속, 마을, 유적·사적, 건축, 조각, 공예) + 관광장소와 시설 중 전시·관람시설
※ 관광장소와 시설 유형 : 숙박·식음시설, 쇼핑시설만 집계

○ 강원도와 영월군의 10월 문화관광 비중은 전국과 유사

- 10월의 전국 문화관광 유형 방문객 비중은 14.5%
- 이 시기 강원도와 영월군의 문화관광 방문객 비중은 각각 12.6%, 14.4%
- 다만 강원도의 하계 관광객 집중 특성이 문화관광에도 영향을 미쳐 10월보다 8월에 더 많은 문화관광객이 강원도와 영월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국	3.9	4.4	5.6	10.0	10.9	8.3	7.8	**12.0**	9.3	**14.5**	7.8	5.5	100.0
강원도	4.7	4.0	4.7	7.8	12.6	10.0	9.4	**16.5**	6.6	**12.6**	6.1	5.3	100.0
영월군	2.8	2.8	2.8	7.0	11.1	8.7	12.6	**22.1**	5.4	**14.4**	6.2	4.1	100.0

〈전국/강원도/영월군의 문화관광 유형 방문객 비중(2011년)〉

○ 가을여행목적지의 이미지가 필요한 영월군

- 영월군은 전국 문화관광 방문객의 10월 집중현상을 나타내면서도 하계휴가가 있는 8월 집중현상이 매우 과도한 상황
- 관내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시설이 입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성의 왜곡이 비교적 덜한 문화관광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

☞ **영월군은 4계절 관광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우선 문화자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가을여행의 개척자(pioneer)」 포지셔닝이 필요**

Ⅱ. 영월군 문화관광의 특성

1. 단종과 김삿갓이라는 영월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 보유

○ 한국의 대표 비극 콘텐츠, 단종
- 열일곱에 숙부에게 죽임을 당한 조선 6대 임금(재위 1452~1455)
- 단종문화제 : 단종제향, 조선시대국장 재현 등
- 장릉 :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한 40기의 조선왕릉 가운데 서울/수도권을 벗어난 유일한 조선왕릉이자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가장 가까운 조선왕릉
- 향후 콘텐츠의 확장 및 재생산 가능
  • 단종과 정순왕후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 사육신과 생육신에 얽혀 있는 충(忠)의 이야기
  • 단종 관련 설화 등

○ 방랑과 사회적 풍자의 아이콘, 김삿갓
- 김삿갓으로 더 잘 알려진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전국을 방랑하며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글재주 시합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인물전설의 대표적 예
-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콘텐츠로 승화 가능
  • 문화적 재능(정통 한문과 비공식 한문에 모두 능숙한 문인)
  • 부친에 대한 죄의식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 : 오이디푸스와 유사
  • 방랑하는 유목형 인간 : 중세시대 시객(뜨루바두르), 방랑문인(바간텐)과 유사
  • 사회적 풍자 : 전 세계 각국마다 존재하는 트릭스터의 일종, 돈키호테 이미지와도 일부 중첩
  • 말(語)을 무기로 삼는 설화적 영웅

2. 소규모 박물관들의 클러스터링

○ 영월군은 어라연, 청령포, 한반도지형 및 아름다운 계곡들로 경관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다종다양한 문화자원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지역

○ 최근 영월군을 문화관광지로 특성화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는 박물관고을
-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에 따라 현재 영월군에는 20개의 박물관이 운영 중이며, 4개가 곧 추가로 조성될 예정

〈영월군 주요 관광자원〉

자원 구분	주 요 내 용	비고
자연 자원	어라연(명승 14호), 청령포(명승 50호). 고씨동굴(천연기념물 219호), 한반도지형, 선돌, 스트로마톨라이트(천연기념물 413호), 요선암/요선정	
	백덕산. 태화산(한국 100대 명산), 봉래산, 금강공원, 연하폭포, 연하계곡, 내리계곡, 와석계곡, 미사리계곡, 칠랑이계곡, 엄둔계곡, 동강생태공원	
문화 자원	**단종역사관, 별마로천문대, 김삿갓문학관, 영월책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국제현대미술관, 묵산미술박물관, 곤충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영월서강미술관, 영월화석박물관, 호안다구박물관, 쾌연재도자미술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아프리카미술박물관, 강원도탄광문화촌, 종교미술박물관, 베어가박물관, 영월동굴생태관, 거미박물관(예정), 술샘박물관(예정), 만봉불화박물관(예정), 목아한민족박물관(예정)**	**박물관 고을**
	단종장릉(사적 196호), 법흥사, 보덕사, 김삿갓유적지, 아트미로공원, 김종길 가옥(고택민박), 우구정 가옥(고택민박), 고진하 가옥, 원용성 가옥	
레저/ 휴양자원	동강시스타, 동강래프팅, 고씨동굴래프팅, 동강오토캠핑장, 상동온천, 영월온천 등	
생활자원	예밀포도마을, 동강애래프팅마을, 술빚고을, 삼굿마을, 당나귀타는 원시마을, 한반도 뗏목마을, 들꽃민속촌, 영흥리 요리골목 벽화, 다하누촌, 영월동강한우타운 등	

3.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높아지는 관심

○ 관내 관광객 방문이 집중되는 자원은 주로 역사문화자원

- 2011년 방문 관광객 기준으로 볼 때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는 청령포 〉 단종장릉 〉 고씨동굴관광지 〉 난고김삿갓문학관 순 : 4개 관광지 방문객이 영월군 전체 방문객 가운데 약 68% 차지
- 4개 관광지 모두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방문 증가 현상이 뚜렷

〈영월군 주요관광지의 관광객 수 변화 추이〉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청령포	190,673	162,329	197,620	255,925	290,539	428,051	364,807	11.4
단종장릉	132,764	141,416	190,324	195,044	225,177	290,148	309,980	15.2
난고김삿갓문학관	42,239	33,119	47,322	59,382	159,376	192,879	141,863	22.4
고씨동굴관광지	108,652	101,535	111,739	125,288	131,396	143,421	150,517	5.6
합계	474,328	438,399	547,005	635,639	806,488	1,054,499	967,167	12.6
전체 대비 비중	93.19	90.61	88.66	72.36	75.37	73.36	67.5	–

Ⅲ. 영월군 박물관고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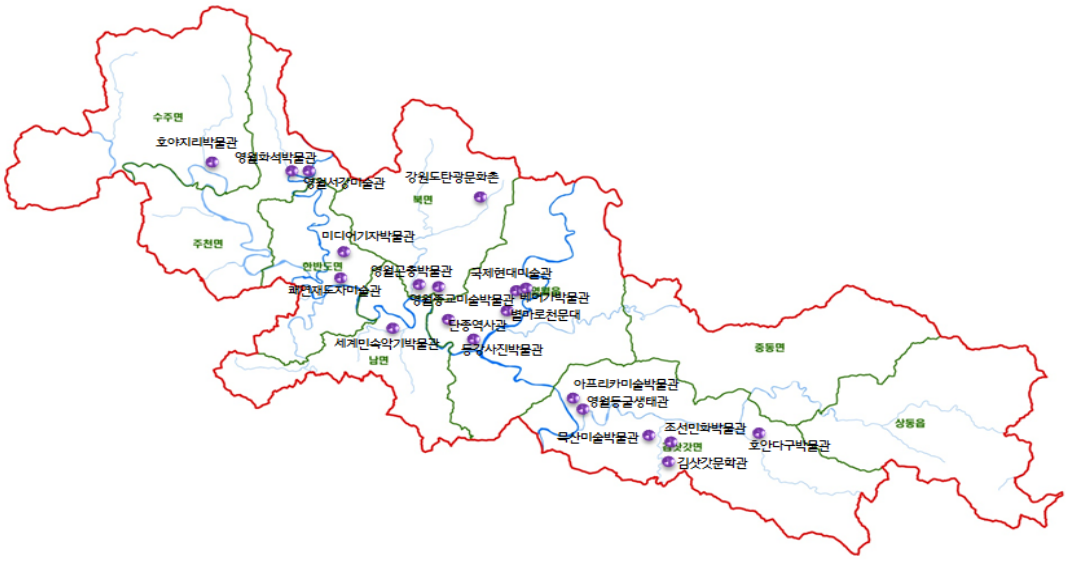
○ 영월군은 지역내 산재해 있는 소규모의 박물관들을 연계 및 집적화하고 향후 입체적인 배치로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을 시행 중

- 영월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은 지역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 신활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영월군의 중요 사업
- 2008년 지역특화발전특별법에 의한 '박물관고을특구 영월'로 지정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
- 2기 신활력지원사업까지 완료된 이후 정부방침에 따라 2011년부터 신활력지원사업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이관

○ 현재 영월군 관내 20개의 박물관 가운데 공립박물관이 6개, 사립박물관이 14개임

- 공립박물관 : 별마로천문대, 단종역사관, 난고김삿갓문학관, 동강사진박물관, 강원도탄광문화촌, 영월동굴생태관

☞ **사립박물관은 소재의 참신성과 고유성이 좋음.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가능성도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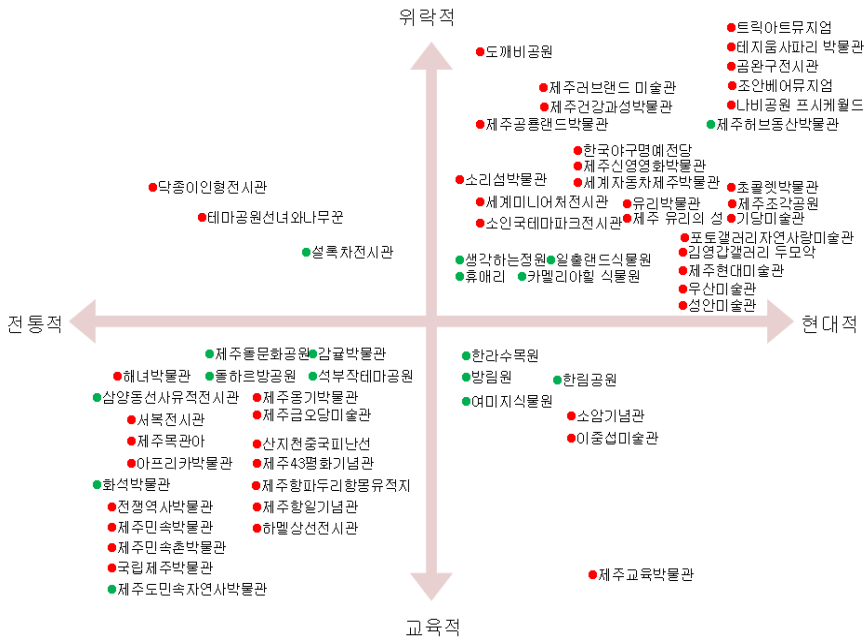
〈영월군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의 현황 : 20개 박물관〉

○ 영월 박물관고을에 집적한 문화시설들은 교육적 의미가 강한 대신 재미와 위락적 요소는 부족

박물관명	분야	방문객 수(2011)	박물관명	분야	방문객 수(2011)
조선민화박물관	민화	30,234명	영월화석박물관	화석	14,015명
국제현대미술관	미술	26,797명	호안다구박물관	찻잔	635명
묵산미술박물관	미술	15,199명	쾌연재도자미술관	도자기	–
별마로천문대	천문	86,101명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악기	3,967명
단종역사관	역사	–	아프리카미술박물관	문화	12,421명
곤충박물관	곤충	28,623명	강원도탄광문화촌	지역	49,748명
난고김삿갓문학관	문학	141,863명	종교미술박물관	종교	1,094명
동강사진박물관	사진	63,331명	영월곰인형박물관	곰인형	17,361명
호야지리박물관	지리	11,023명	영월동굴생태관	동굴	38,413명
영월서강박물관	미술	–	미디어기자박물관	미디어	–

☞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보다 쉽게 찾아가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 : 각종 테마시설이 집적한 제주도의 경우 교육적 요소와 위락적 요소가 함께 공존**

※ 제주도 주요 테마시설의 분포를 전통적–현대적, 위락적–교육적의 4개 축으로 나눠 살펴보면, 대략 전통적 · 교육적인 성격과 현대적 · 위락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위락적 요소를 갖춘 다양한 테마시설들로 인해 재미있고 즐거운 박물관으로 이미지화
– 다양한 계층과 대상의 수요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의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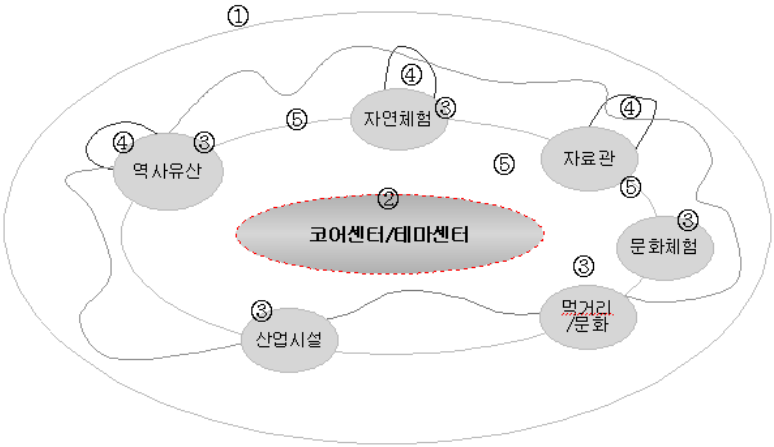


Ⅳ. 강원도 가을여행의 새로운 개척자, 박물관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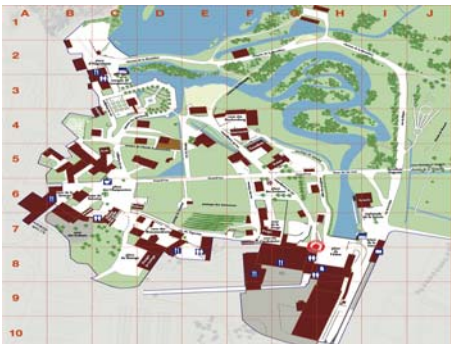
1. 에코뮤지엄으로의 시스템화

○ 에코뮤지엄이란 196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탄생한 개념으로 그 곳에 사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의 가치를 발견(수집)하여 그 가치를 표현(전시)·활용하고자 하는 개념

- 1973년 프랑스 Le Creusot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이 참여한 최초의 에코뮤지엄이 만들어진 이래 에코뮤지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300여 개에 이름
-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 등에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도입되어 현재 전국에 56개 정도 분포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



B6 레스토랑 & 구둣방
C2 호스텔
C6 제재소, 마굿간
C7 맛집 & 목수의 집
D8 제과점 & 여름정원 & 포도원
F6 염소의 거리
G5 도자기의 집
I8 역 광장 & 부티끄 상점 등

〈에코뮤지엄 사례 : 프랑스 알자스 에코뮤제〉

☞ **영월군 관내 입지한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유산, 산업시설, 먹거리/문화, 체험시설 등을 하나의 트레일로 연계시키는 기본구상 필요**

2. 살아있는 박물관 만들기

○ 대중들로 하여금 박물관이 살아 있도록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박물관이 가진 콘텐츠와 기획의 힘 :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완하는 역할은 전문 큐레이터 양성 필요

☞ **영월 박물관고을 특구 지정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관한 특례」로 5개의 박물관에 1명의 학예사 공동 고용 조건이 적용되었으나 박물관의 기획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 큐레이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박물관 수 확대시 구성 요소들의 다양성 추구

○ 에코뮤지엄 조성 원칙에서 언급했듯이 영월군 관내 역사문화유산, 산업유산 또는 생활문화유산 등에 스스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여 영월만의 독특한 문화자산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박물관고을사업과 연계 및 병행 필요

- 예시) 지역 한옥유산들의 활용
- 예시) 영화 「라디오스타」에 등장했던 삶의 현장들에 장소적 의미 부여 등

○ 박물관고을의 주요 방문 대상층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적 의미와 더불어 가족들이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위락적 요소들도 투입 필요

- 예시) 제주 트릭아트뮤지엄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이 주천면에 입지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교육생뿐만 아니라 국내 일반관광객의 방문 수요도 발생하므로 이를 박물관고을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 필요

4. 등대 역할을 하는 스타 박물관 육성

○ 다양한 소규모의 박물관이 입지하더라도 관광객의 방문동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소위 '스타 박물관'이 필요 : 핵심적인 박물관이 있어야 주변 박물관들로 관광객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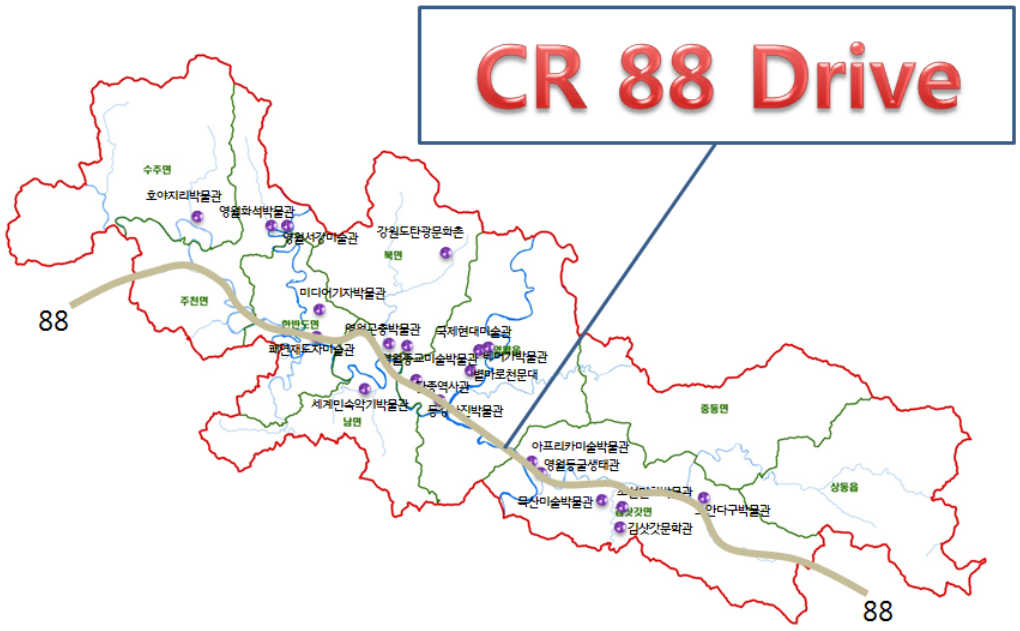
○ 스타 박물관은 지역내 각종 문화관광자원을 안내해주는 정보 창구의 역할도 담당

☞ **영월 박물관고을의 경우 공립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이나 단종역사관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야 함**

5. 88번 도로에 가을 문화의 감성 색칠

○ 관광객의 이동 동선을 고려할 때, 현재 주천면에서 영월읍 및 김삿갓유적지를 잇는 88번 도로가 영월군 최고의 관광도로 : 평범한 국도를 탈피하여 감성적인 드라이브 도로(Drive Way)로 이미지 변신 필요

- ‘CR(Culture Road) 88 Drive’ 브랜딩으로 88번 도로를 장소마케팅 : 전형적인 농촌경관, 서강과 동강이 흐르는 자연경관, 그리고 박물관들을 잇는 문화경관
- 가을 대표 상품「단풍로드」: 가을 단풍과 박물관 탐방, 시골 맛집 투어를 드라이브 패키지로 연계



〈영월군 박물관고을을 달리는 CR 88 Drive〉

6. 기존 걷는 길들을 박물관고을 트레일로 통합

○ 국가생태탐방로, 이야기가 있는 길, 산꼬라데이길 등 관내 걷는 길들을 통합

○ 박물관이 많은 한반도면, 남면, 북면, 영월읍의 경우 박물관고을 트레일 상품 개발

7.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박물관 마일리지(Museum Milage) 제도 운영

○ 개별관광객이 박물관들의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박물관 마일리지 제도 운영
- 마일리지 누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등

8. 박물관 단체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

○ 다양한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행사들에게 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 단체관광 프로그램은 학습콘텐츠와 해설이 관건
- 박물관별 학습콘텐츠와 해설 역량 현황점검 및 보강
- 대상별, 시기별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필요

9. 올림픽 레거시(Legacy) 준비

○ 박물관 인프라들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서비스 제공
- 예시) 단종역사관 : 단종 관련 인형극 운영
- 예시) 동강사진박물관 : 동계올림픽 최고의 순간 사진전
- 예시) 영월곰인형박물관 : 테디베어로 표현하는 강원도의 겨울 문화 등

10. Museum Shop 육성

○ 일반적으로 박물관 이동 동선상 관람객의 마지막 방문순서는 기념품 코너
○ 중소규모의 박물관이 대다수인 영월군의 경우 기념품 코너 운영이 영세하거나 아예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집중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스타 박물관에 합동 전시 및 판매하는 방안
- Museum Shop을 새로 조성하여 20여 곳의 박물관 기념품을 한 데 모으는 방안
- 농협, 관광안내소 등 기존 건물에 박물관 기념품 통합 판매 코너를 만드는 방안

○ Museum Shop 운영시 영월 박물관고을의 기념품만 판매하기보다는 이와 연관성을 가진 다양한 해외 박물관 기념품들도 함께 전시·판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



〈핀란드 Design Museum Shop : 자국 디자인 제품 및 전 세계 제품도 함께 전시·판매〉

11. 연중 계절별 특색을 입힌 박물관고을로 변신 노력

○ 4계절 전시 기획력 강화
- 가족과 함께 찾는 “봄나들이 박물관고을”
- 동강과 같이 더위를 쫓는 “여름 박물관고을”
- 가을단풍여행은 “가을 박물관고을”
- 겨울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겨울 박물관고을”

12. 서울·수도권 홍보의 다각화 및 모니터링 지속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울 지하철 홍보를 지속화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 KTX나 공항 등에도 박물관고을 홍보 전략 마련
○ 계절마다 변화하는 영월 박물관고을의 콘텐츠를 강조하는 것이 관건

※ 이 정책메모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우리 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